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임선영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Nursing Students

Sun-young L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U시에 위치한 C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15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9.68$, $p<.001$), 실패공포($\beta=0.65$,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beta=0.29$, $p<.001$)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8.8%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수준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완벽주의, 공포,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

Abstract : The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215 nursing students at one college in the Ulsan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5.0 program. Study finding revealed that fear of failure($\beta=0.65$, $p<.001$),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beta=0.29$, $p<.001$), about academic procrastin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F=26.68$, $p<.001$). This variables accounted for 28.8% of the variance i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to lower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erfectionism, Fear, Self-efficacy, Academic procrastin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중증환자의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신종 감염병의 유행은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1]. 이러한 변화는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Lim(ciprova@ch.ac.kr)

Received January 10,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April 6,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2]. 특히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간호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며 학습성과 기반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생명을 다루는 학문에 대한 긴장감과 임상실습이나 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취업과 학업성적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민감성이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코로나 19라는 신종 감염병 상황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 개편이나 차별화된 교육방법 마련을 통해 직업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간호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역할을 기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5]. 이로 인하여 대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엄격해진 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전공 교과목의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6].

간호대학생의 높은 스트레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저하, 불안, 우울감으로 대학생활 적응력 저하와 학업지연행동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8].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성취감[9], 완벽주의 성향 및 불안[10] 등이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 및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 등 다차원적 내용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는 개념이다[12]. 완벽주의의 세부항목 중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가능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부적응 심리상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임상현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현상이 대부분으로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은 간호업무의 효율성이나 부서 내의 성과지표와 연관되게 된다[14]. 즉, 타인들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부여하여 압박을 가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노력을 미루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15]. 이러한 결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완벽주의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패공포는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실패로 인해 따르는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된다[16]. 실패공포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업지연행동이나 완벽주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17]. 많은 연구자들은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실패공포를 지목하며, 실패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개인의 동기가 줄어들어 지연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1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19]. 또한 학업수행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잘 대처하여 학업에 대한 적응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된다[9].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보고되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융복합적 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교육적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의 차이와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U시에 위치한 C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215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hen의 법칙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양측검증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표준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크기는 107명으로 본 연구 충분한 설문인원을 확보하여 최소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Hewitt와 Flett[21]가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45 문항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15점부터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이었고 본 연구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문항만을 활용한 Park[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3.2 실패공포

실패공포는 Conroy, Willow와 Metzler[23]가 개발한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PFAI-R)를 Lim[2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25점부터 최대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결과에 대한 실패공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Jang[2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7점부터 최대 3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3.4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은 Huh 등[26]이 개발한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18점부터 최대 9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U시에 소재 C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임의 추출된 간호학과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온라인 설문방법으로 개발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만 설문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리고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연행동의 관련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연행동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76명(91.9%), 남자가 39명(18.%)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3.12±7.85세로 만22세 이하가 105명(44.8%)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2학년 67명(31.2%), 3학년 108명(50.2%), 4학년 40명(18.6%)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업성적 정도는 '상'으로 답한 학생이 23명(10.7%), '중'이 170명(79.1%), '하'가 22명(10.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66명(30.7%), '만족한다'가 11명(51.6%)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한다'의 경우가 36명(16.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	Division	n	%	M±SD
Gender	Women	176	81.9	
	Men	39	18.1	
Age	≤22	105	48.8	26.21±7.85
	23-25	48	22.3	
	26-28	24	11.2	
	29≤	38	17.7	
Grade	Second	67	31.2	
	Third	108	50.2	
	Fourth	40	18.6	
Academic record	Good	23	10.7	
	Average	170	79.1	
	Bad	22	10.2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	0.9	
	Moderate	66	30.7	
	Satisfaction	111	51.6	
	Very good	36	16.7	

3.2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은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15점, 2.86점, 3.63점, 3.01점이었다.

Table 2.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N=215)

Variable	Item M±SD	Total M±SD	Total rang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15±0.41	47.21±6.14	15-75
Fear of failure	2.86±0.87	71.74±21.73	25-125
Academic self-efficacy	3.63±0.78	25.45±5.43	7-35
Academic procrastination	3.01±1.03	54.20±18.51	18-9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Table 3와 같다. 나이(F=4.448, p=.005)와 학업성적 정도(F=8.0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2세 이하 보다는 23세에서 25세 사이가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 정도에서는 '하'가 '상'과 '중'보다는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3.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	Categories	Academic procrastination	
		M±SD	t or F(p) Scheffe'
Gender	Women	3.01±1.03	-.124 (.899)
	Men	3.02±0.99	
Age	≤22 ^a	2.93±0.92	4.448 (.005) (a,b)
	23-25 ^b	3.36±0.98	
	26≤ ^c	3.24±1.07	
	29≤ ^d	2.63±1.19	
Grade	Second ^a	2.98±1.01	1.962 (.143)
	Third ^b	2.92±1.00	
	Fourth ^c	3.29±1.09	
Academic record	Good ^a	2.40±1.03	8.014 (<.001) (a,b,c)
	Average ^b	3.02±1.02	
	Bad ^c	3.58±0.67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	3.05±0.00	2.508 (.060)
	Moderate ^b	3.29±1.00	
	Satisfaction ^c	2.90±1.00	
	Very good ^d	2.83±1.08	

3.4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연행동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간 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업지연행동은 사회부과 완벽주의($r=.178, p=.009$), 실패공포($r=.495,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r=-.321, p<.001$)과는 음의 상관을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N=215)

Variab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p)	Fear of failure r(p)	Academic self-efficacy r(p)
Fear of failure	.681 ($<.001$)		
Academic self-efficacy	-.314 ($<.001$)	-.502 ($<.001$)	
Academic procrastination	.178 (.009)	.495 ($<.001$)	-.321 ($<.001$)

3.5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나이, 학업성적 정도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확인된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동시 입력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9.68, p<.001$), 독립 변인 간의 독립성은 그들의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0.85~0.97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5~1.83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urbin-Watson값이 1.853로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이 없었다.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패공포($\beta=0.65,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beta=0.29, p<.001$)이었으며.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8.8%로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rocrastination (N=21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63.213	11.540		5.478	$<.001$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88	0.24	0.29	3.71	$<.001$
Fear of failure	0.56	0.07	0.65	7.51	$<.001$
Academic self-efficacy	-0.28	0.23	-0.08	-1.24	.215

Adj. R2=.288, F=29.68, $p<.001$, Durbin-Watson=1.85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01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g과 Ham[27]의 연구에서는 평균 2.76점이었고, 전문대학 전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Junh & Yune[28]의 연구에서 2.7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점수가 다소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 특성상 이론 교과목과 임상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과제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학업지연행동이 확인된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나이와 학업성적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7, 9].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15]에서 확인된 변수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청년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학과로 재입학하는 학생수가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간호대학생의 나이는 학업지연행동뿐만 아니라 재입학으로 인해 겪게 되는 많은 부담감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oh와 Lim[11]의 3.11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Noh, Park와 Im[29]의 연구결과 평균 3.42점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국 소재 4년제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30]의 연구의 평균 2.7점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의 많은 학습량과 각 교과목별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부담감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스트레스가 일반 대학생들 보다 높은 사회주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간호사들 사회부와 완벽주의 점수가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것은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 간호대상자의 죽음 등 인간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패공포는 5점 만점에 평균 2.8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패공포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었으나 시험불안이나 학업스트레스 등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30]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취업과 간호사국가시험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학과 2학년에서 4학년이었고 참여자 중 3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의 상관관계는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껴 회피하게 되고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이, 학업성적 정도,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부와 완벽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상태로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학업지연행동을 줄일 수 있는 간호학적 중재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부정적인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들 요인을 고려한 간호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편중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연구와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해진 간호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호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퇴직을 결심하는 간호사 수의 증가는 단 시간에 발생된 문제는 아니다. 다양해진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 즉, 방해되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지연행동은 사회부와 완벽주의, 실패공포와 양의 상관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나이와 학업성적 정도를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은 28.8%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학업지연

행동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양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대학생들에게까지 부과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이 학업지연행동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도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교와 학제, 학년에 따른 비교를 통한 탐색 및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경우 자기 보고식 설명 방법을 통해 측정되어 사회·심리학적 속성을 측정할 때 응답 편향으로 인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담이나 관찰법을 통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뿐만 아니라 학업지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깊이 있고 통합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C. K. Kim (2020) *Corona 19 changed everything we do every day. One-year record*, Korea Policy Briping (Onlin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350>
- [2] M. I. Kim. (2019).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human resources who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n Nursing. (2021). *Manual and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in 2021*.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n Nursing. (Online). <http://www.kabone.or.kr/m/notice/list/view.do?num=756>
- [4] Y. J. Son, E. Y. Choi & Y. A. So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4), 345-351.
- [5] J. R. Han. (2019).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11-318. DOI : 10.14400/JDC.2019.17.5.311
- [6] J. E. Hong & M. K. Song. (2019). Emotional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Journal of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8(1), 12-25. DOI : 10.12934/jkpmhn.2019.28.1.12
- [7] K. H. Baek. (2015).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8] S. H. Choi & E. K. Byun. (201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2303-2313.
- [9] J. H. Kum. (2018).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325-338.
- [10] K. H. Shon & N. H. Kim. (2018).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xiety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577-587. DOI : 10.35873/ajmahs.2018.8.2.057
- [11] G. O. Noh & Y. S. Lim. (2017).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1655-1668. DOI : 10.37727/jkdas.2017.19.3.1655
- [12] G. L. Flett & P. L. Hewitt, (Eds.).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0458-000
- [13] Y. H. Kim & S. G. Seo. (2008). A Review of Perfectionism: Assessment and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581-613.
- [14] G. O. Noh, K. S. Park & Y. S. Im. (2016).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advanced practice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2), 109-118. DOI : 10.11111/jkana.2016.22.2.109
- [15] Y. S. Cho & Y. S. Kang. (2015). The mediation effects of anxiety sensitiv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Korean Counseling*, 16(4), 359-375. DOI : 10.15703/kjc.16.4.201508.359

- [16] R. C. Birney, H. Burdick & R. C. Teevan. (1969). *Fear of Failure*, New York: Van Nostrand.
- [17] K. H. Ki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6), 459-474. DOI : 10.22143/HSS21.11.6.34
- [18] S. H. Kim. (2016). *Fea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 [19]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20] K. U. Kim & Y. H. Cho.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21] P. L. Hewitt & G. L. Flett.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DOI : 10.1037/0022-3514.60.3.456
- [22] S. J. Park. (2020).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tres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Master's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cheongnam-do.
- [23] D. E. Conroy, J. P. Willow & J. N. Metzler.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24] S. M. Lim. (2006). The Relation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hron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185-211.
- [25] Y. S. Jang (2019). *Discriminant and predictive analyse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s according to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relevance, academic self-efficacy, occupational eng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26] H. S. Huh. S. Y. Im & S. M. Kwon (2015).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Impulsiveness on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34(1), 147-172. DOI : 10.15842/kjcp.2015.34.1.008008
- [27] S. S. Song & H. J. Ham. (2021). Converged Influence of Professor Support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225-235. DOI : 10.15207/JKCS.2021.12.3.225
- [28] B. R. Jeon, H. Y. Jung & S. J. Yune (2016). The effects of life goal and achievement goal on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313-334. DOI : 10.24159/joec.2016.22.6.313
- [29] G. O. Noh, K. S. Park & Y. S. Im (2016).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09-118. DOI : 10.11111/jkana.2016.22.2.109
- [30] S. J. Park & S. D. Lee(2020).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tres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1245-1264. DOI : 10.22251/jlcci.2020.20.12.1245

임 선 영(Sun-young Lim)

[정회원]



- 201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동의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간호교육
- E-Mail : ciprovay@ch.ac.kr